

금주의 기도

세세토록 무궁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과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어둔 세상에서 승리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3월 24일 (토) 제 167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발행인 칼럼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예수님 나의 예수님
-부활의 계절에 드리는 기원-

굳게 닫혀있던 대자연에 푸르게 새싹을 피우는 새봄을 바라보며
당신의 창조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굳게 닫혔던 죽음의 무덤을 터치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신 예수님께
연분홍빛으로 물들진 꽃봉오리도
화사한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죽음을 앓고 있는 이 그늘진 세상에
죽을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고자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인류의 생명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그래서 당신은 병든 인류의 의사이시며
죽음을 맞은 인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당신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깊고 넓은 사랑에 경의를 표합니다

푸르른 부활의 계절을 맞아하여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의 그 고마움을
다시 한 번 새김질해 봅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부모도, 처제도, 형제도, 친구도, 그 누구도 주지 않는
단 하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당신은 영원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봄에 당신의 부활 생명으로 찾아오소서

예수님,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던 생명의 예수님

에스겔 골짜기 그 죽음의 계곡에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랑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명하시던 그 생명의 권능으로
다시 한 번
이 죽어가는 지구촌에 찾아오시어
당신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죽음의 온 누리에
당신의 영원한 부활 생명이 짙게 하소서
당신의 부활 생명이 활짝 꽃 피게 하소서

부활 생명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은혜로 고난 현장으로 간다!

2018년 부활주일, 그 의미와 은혜로 그리스천 생활의 실체로 나아가야

어느 날 아침, 롤로 메이(Rollo May, 심리학자)는 우연히 그리스도교회의 부활 축하예전을 목격했다. 밤새도록 계속된 교회 미사의 끝자락이었다. 공중에는 향냄새가 진동했고, 빛이라고는 부활절 사탕에서 반사된 빛이 전부였다. 미사가 절정에 이르면, 사제는 참석한 모든 신도에게 부활절 계란을 세 개씩 나누어주었다. 예쁘게 장식해서 포장까지 한 계란이었다. 그런 다음 그리스어

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외쳤다. 롤로 메이를 포함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전에 따라,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화답했다. 롤로 메이는 이렇게 적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영적인 실재에 사로잡혔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일까?”

부활절을 맞아,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메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의미를 되새김질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일까? 왜 수도사들은 밤새워 부활을 기리는가? 초대교회 그리스도교회는 부활에 모든 것을 걸었다.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고전 15:14).

필립 안시는 “부활 주일(Easter Sunday: Part four of The Great Reversal, a CT Classic article)”이란 글에서, 부활절이 ‘돌이킬 수 있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밤 맥길킨의 장례식에서, 나는 롤로 메이의 질문을 빌려다가 우리가 당한 슬픔에 대입해 보았다. 밤이 다시 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흘간 슬픔과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서 있었다. 죽음



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다. 장례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더니, 놀랍게도 주차장에 밥이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 밥이 거기 있다면! 또렷한 회색 눈을 가진 밥이 한쪽 입 꼬리를 살짝 올려 웃으면서 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온다.

이런 상상을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부활절에 어떤 심정이었는지 조금 이해가 갔다. 그들도 사흘 동안 슬퍼했다. 하지만 주일 아침, 그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놀라운 실마리를 엿보았다. 부활절은 새로운 가능성, 희망과 믿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 옛날 예루살렘 묘지에서 하셨던 일

을 온 세상을 위해 얼마든지 다시 하실 수 있고, 또 다시 하시리라는 사실 말이다. 이 세상을 위해, 밥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역경과 저항을 무릅쓰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돌이킬 수 있다.”

결국 부활 사건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즉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것들을 한번에 “돌이키는(reversible)” 은혜다. 잘못도, 무관심도, 죄악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단번에 돌이킬 수 있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제자들은 두려워서 은밀히 숨어 있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qospellmail@hotmail.com

부활절 설교
김성국 목사

3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부활절에 부치는 시
황동의 목사

13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넘어 빛으로,
사망을 넘어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새 아침에 기쁨을 나누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매일 노 장 수 목사



시론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봄. 겨우내 죽은 듯이 말라 있던 나뭇가지들에 연초록 잎사귀들이 빠져나온다. 뜨락에 있는 성급한 사과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벌써부터 알을 내고 올 여름 무성할 것을 예고한다. 물을 거의 주지 않는 앞마당 한쪽 구석에서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나온 철쭉의 생명력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척박한 땅 속에 이렇게 풍성한 일년생 식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왕성하게 여기저기에서 피어나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릴 채비를 갖추고 있다. 산으로 들로 나가보면 이런 생명의 경이상은 더욱 창궐하다. 보잘 것 없는 한낱 들꽃들이 보란 듯이 꽃꽂이처럼 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나무들에는 물이 올라 푸른빛이 감돌고 있다. 지난 해 봄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여 탄성을 자아냈던 이곳의 찬란한 풍광을 벌써부터 설렘으로 기다린다. 이렇듯 봄이 되면 세상은 부활의 원리로 충만하다.

“나도 당했다!”는 미투 운동. 요즘 미국도 한국도 미투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이것의 끝이 어디인지조차 가능하기 쉽지 않다. 작년 10월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이 수십 년에 걸쳐 여배우들에게 성추행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여배우 자신이 고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제 여성 스로가 성범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읽혀지는 운동이다. 이 운동이 올해 1월 들어서 한국의 검찰청 내부의 성추문으로 불거졌고 문학계, 영화계, 연극계와 정치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번졌다. 안타깝게도 목사가 무슨 권력이라고 소수의 목사도 이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역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영화배우는 이미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만큼 이 운동의 파급 효과는 크다. 이 운동의 가해자가 되면 그가 평생 쌓아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다. 아마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부활.” 톨스토이가 1899년 발표한 작품. 네플류돌프라는 귀족 청년의 고모 집에서 일하고 있는 양녀 겸 하녀 카추사 마슬로바. 고모네 집을 떠나기 전날,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 밤에 네플류돌프는 충동적으로 그녀를 겁탈한다. 아침이 되어 자기를 즐겁게 해준 대가로 지폐 한 장을 달랑 쥐어주고 미련 없이 떠나버린다. 그리고 오랜 세월 잊고 산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고모는 화가 나서 그녀를 내쫓아버린다. 졸지에 갈 데 없는 신체가 된 카추사는 매춘부로 전락하여 살다가 강도 살인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투옥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그녀를 까맣게 잊고 있던 네플류돌프는 배심원석에서 자신이 배당 받은 초체한 용의자가 오래 전 자신이 하룻밤 즐겼던 카추사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자신이 단 한 번의 성적 노리개로 삼은 비열한 행동이 이렇게 한 인생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카추사를 구하려고 백방 노력을 기울이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에서 귀족사회의 부패와 전박함과 농민들과 힘없는 약자들의 삶의 비참함을 깨닫는다. 결국 네플류돌프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는 카추사를 따라 나선다. 그리고 좁고 황량한 시베리아 벚지의 어느 여관방에서 진지하게 삶을 반성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읽다가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다.

베드로. 가장 지독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부인을 의미한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떤 말로 저주하고 누구를 걸고 맹세했는지는 표현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베드로를 다 아는 처지에 더 심한 표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저주라는 것은 일종의 욕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에게 욕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죄다. 더군다나 유대인은 맹세를 잘하지 않는다. 대개 하나님을 걸고 하는 것이 맹세이기 때문이다. 불가피해서 맹세를 한다 해도 거짓으로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여긴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거짓으로 맹세하였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의 죄가 베드로의 죄보다 더 큰지는 가능하기 어렵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한 것은 그의 회개에 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슬픔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내는 길을 여셨다는 뜻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될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비단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가해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도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것이다. 만물이 신성한 이 봄에 철저히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모든 죄악의 죄사슬을 담대하게 끊어버리자. 나부터.

예루살렘 ‘성묘교회’ 폐쇄, 재개 조치로 하나된 크리스천들!

CT, 이스라엘 정부 세금부과로 맞선 공동관리 기독교 교파들 일치된 모습 보도

지난 2월말 저녁, 예루살렘 ‘성묘(Holy Sepulchre)교회’의 대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다. 이 교회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터에 세워졌다. 이에 ‘부활교회’라고도 불린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믿는 크리스천에게 이 교회는 신앙의 알파(시작)와 오메가(끝)다. 특히 4월 부활절 기간에는 성지(聖地) 중의 성지로 통한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은 이례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335년 지어진 성묘교회는 1009년 무너졌다가 1048년 재건된 이후 지금까지 폐쇄된 적이 거의 없다. 1년 365일 내내 예루살렘의 어떤 교회나 모스크, 시너고그보다도 일찍(새벽 4시) 문을 열고 늦게(저녁 7시) 닫았다. 산 넘고 바다 건너 찾아온 순례자들을 헛걸음시키지 않고 항상 맞이하기 위해서다. 이런 성묘교회가 왜 이날 문을 열지 않은 것일까?

성묘교회를 공동 관리하는 로마가톨릭·그리스정교회·아르메니아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 정

부가 오랫동안 유지돼온 교회 소유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약속을 깨뜨려려 한다”면서 “항의 시위로 교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회 재산에 세금을 물리려는 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힘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유대국가 이스라엘이 제도를 수단 삼아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암흑기의 반(反)유대주의 정책과 같은 조치가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을 상대로 가해지고 있다”고 강경 발언을 했다. 유대인은 홀로코스트라는 대재앙을 낳은 유럽의 반유대주의 역사를 가지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세금 문제로 정면충돌한 것이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그 속사정, 즉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오래된 갈등이 세금 문제로 촉발된 성묘교회 폐쇄 사건을 자세히 보도한다(Jerusalem Christians Unite ... to Clos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Against centuries of precedent, Holy City authorities pursue \$186 million in church taxes).



2월 25일, 닫힌 성묘교회 앞에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세금 부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교 상인들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무슬림에 비해 인구 면에서 소수이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열세하다”면서 “갑자기 세금을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시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외신을 통해 퍼지자 세계 각국에선 ‘성묘교회에 못 들어간다’면서 이스라엘 여행 취소가 잇따랐다. 성묘교회 하루 방문자 수는 수천 명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관광업이 국가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성묘교회 폐쇄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일명 부활교회, 335년 건축...1048년 재건 후 계속 오픈 기독교 6개종파 티격태격 공동관리...이번에 처음 하나돼

집트·아시리아·페르시아·마케도니아·유다·로마·비잔틴제국 등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다. 7세기부터 20세기까지 1300년 동안은 유럽 십자군전쟁 때를 빼곤 이슬람 왕조가 예루살렘의 주인이었다. 1917년부터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까지는 영국이 위임 통치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선언했지만, 유엔 가입국 절대다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 20여 개 아랍연맹국은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종교 등 여러 방면에서 예루살렘은 어느 한 세력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복잡한 도시인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예루살렘 지위 문제는 ‘현상 유지(Status Quo)의 유지’가 최선의 문제 해결법이란 말이 도는 이유다.

그러나 군사력이 우위인 이스라엘은 ‘현상 유지’를 깨려고 한다. 1967년 ‘6일 전쟁(3차 중동전쟁)’에서 대승하며 예루살렘을 완전히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6일 전쟁’ 전만 해도 성묘교회 부지를 포함한 예루살렘 동부는 요르단 정부군이 점령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그랬던 이스라엘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 도시를 완전 통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학생들은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자기네 모국어인 아랍어가 아닌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를 배워 히브리어로 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 개통도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루살렘 올드시티 내 종교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사법 절차가 이스라엘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성역(聖域)까지 점령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번 세금 문제가 그 ‘계략’의 하나라고 보고 성묘교회 폐쇄 시위라는 비장한 카드까지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굳게 닫힌 성묘교회 앞 광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순례자들은 닫힌 교회 문에 손을 얹고 무릎 꿇은 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세금 조치를 보류하겠다”면서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교회 세금 문제의 해결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성묘교회는 폐쇄사를 뒤인 2월 28일 새벽 4시 문을 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시위를 끝낸다”면서 “다시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2018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지역구분

(주후 2018년 4월 1일 주일 새벽 6시)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네교회) 917-326-1723

교협 총무: 김희복 목사(주찬양교회) 646-270-9037

번호	지역	장소	준비위원장	설교자
1	Corona Woodside	뉴욕하트교회	이재봉 목사 조원태 목사	윤종훈 목사
2	Sunnyside	미정	손한권 목사	미정
3	Elmhurst	퀸즈한인교회	김희복 목사 김재권 목사	김희복 목사
4	Flushing 1	순복음연합교회	김상태 목사	최예식 목사
5	Flushing 2	목양장로교회	이준성 목사	송병기 목사
6	Flushing 3	미정	한석진 목사	미정
7	Flushing 4	빛과소금교회	정순원 목사 박현숙 목사	정순원 목사
8	Flushing 5	뉴욕한성교회	이창중 목사	이창중 목사
9	Flushing 6	프라미스교회	김명옥 목사 이종선 목사	김남수 목사
10	Flushing 7	퀸즈제일교회	박성원 목사	황상하 목사
11	Flushing 8	대한교회	마바울 목사	마바울 목사
12	Fresh Meadows	에벤에셀선교교회	김진화 목사	이만호 목사

번호	지역	장소	준비위원장	설교자
13	Bayside 1	선한목자교회	박준열 목사	박준열 목사
14	Bayside 2	초대교회	이재덕 목사	이재덕 목사
15	Little Neck	그레이트네교회	이상훈 목사 양민석 목사	양민석 목사
16	라클랜드 웨체스터 Bronx	뉴욕백민교회	안성국 목사	안성국 목사
17	Staten Island	뉴욕성결교회	오조나단 목사	김경환 목사
18	Manhattan	뉴욕정원교회	주효식 목사	주효식 목사
19	Brooklyn	부르클린제일교회	이윤석 목사	이윤석 목사
20	L.I. 1	아름다운교회	황태연 목사	김종훈 목사
21	L.I. 2	뉴욕센터교회	이지용 목사	이광희 목사
22	L.I. 3	열린교회	임영건 목사	김성철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Tel (718)279-1414 Fax (718)321-0105

회장 이만호 목사

총무 김희복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

부·활·절·절·교

부활의 사람들

(에베소서 4:17-32)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생을 사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은 나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며, 반드시 다른 자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와 그러지 못한 자입니다(엡4:22b, 24). 부활을 만나지 못한 옛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엡4:17-18).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옛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1)허망한 것으로 행함 2)총명이 어두워짐 3)마음이 굳어져 행함이 허망합니다. 총명, 지식, 생각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총체인 지, 정, 의가 완전히 망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새사람은 어떨까요? 부활의 사람으로 사는 자도 상반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부활을 소유한 자인가, 장차 누릴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기 합당한 자인가 함께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생각

옛사람은 생각이 어둡습니다. 항상 어두운 생각만 합니다. 부정적입니다. 항상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므로 맞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할 뿐, 그 너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각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20-21). 우리는 진리로 생각하는 것, 바르게 생각하는 것, 새롭게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들이 있는 상황에서 빌립의 생각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요 6:5-9).

빌립뿐 아니라 안드레의 생각도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은 이것이, 내일은 저것이 기준입니다. 절대기준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 가운데 이 떡과 물고기를 놓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올려져 감사하시면서 여기에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 가득히 거두게 될 놀라운 기적, 이적을 보십니다.

우리는 초월의 존재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란, 핍박 등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있었던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제안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b).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생각하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무엇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생각은 항상 밝습니다. 항상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진리, 참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요일5:20b).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니 내가 과연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마다 하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2(물고기 두마리)+5(보리 떡 다섯개)=7”, 이것은 한 사람의 점심. 이것밖에 생각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은, “2+5+예수님=무한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생각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필요함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굶주린 무리가 있었던 그 날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 현실적인 계산으로만 생각하여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부활의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실의 사람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굶주림의 자리가 배부르고도 남는 자리가 될 것이며 탄식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이며,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2. 새로운 마음

부활의 사람은 생각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특별한 때까지 받았다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한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애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얼마나 쌀쌀한지 모릅니다. 형식적이고 마음이 굳어있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만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아닌 종교적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만난 부활의 사람들은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23)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멘트여도 이 시멘트 그대로를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물을 집어넣어야 부드러워지

면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도 아무리 좋은 밀가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거거서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딱딱한 마음은 아무 곳에도 쓸 곳이 없습니다. 굳은 마음. 이것은 부활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부드러워질까요?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36:26) 물이 있어 시멘트가 부드러워지고 물이 있어 밀가루가 부드러워지듯이, 이 굳은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바로 부활의 영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삶이 되고 부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도마도 사울도 얼마나 의심이 많고 마음이 딱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찬송과 기도 그리고 예배가 있어야 부활의 찬송, 부활의 기도, 부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망가진 마음, 상처난 마음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건 강한 마음 새로운 마음은 부활하신 영인 성령을 받은 자들만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산다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사람이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니다.

3. 새로운 행동

부활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행동을 요청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은 허망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나면, “그들이 감감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19),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22) 것입니다. 옛 생활과 옛 행동이 썩었고 방탕하며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한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것을 행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활의 사람들, 변화된 자들의 행동은 다릅니다. 본문 25절부터 보면, “그러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25-29, 32).

항상 거짓된 말, 다른 자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바뀌어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뺏고 취하던 그런 삶이 나눠주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화를 냈는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화를 냈는데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화를 낼 때에 죄로 치닫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행동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 부활의 사람들은 행동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묵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은 잘합니다.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13:15-16). 두 예배란 찬송의 제사, 행동의 제사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이런 것 또한 제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끼리는 속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속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사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산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결단하였지만 밖에 나가서는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한 번도 용서하지 않고 한 번도 위로하지 않고 한 번도 나눈이 없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제사가 두 종류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동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을 위한 부활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활을 나만 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 될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 분명하고 미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부활은 지금 나타나야 합니다. 이 부활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다른 자들이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이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과 미래에 누리겠다는 것, 절대로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는 누구냐?”고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생각이 바뀐 자. 마음이 바뀐 자, 행동이 바뀐 자입니다. 옛 것이 죽지 않고는 새것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으로 부활의 진면목을 보여주시시오.

kimseoungkook@gmail.com

부활의 은혜로 고난 현장으로 간다

(1면에서 계속)

부활의 현현이 없는 한, 제자들은 성금요일에 일어난 일의 의미를 아직 알 수 없으며, 나중에 그들이 더욱 더 놀랐듯이 자신들의 남은 인생의 모든 세월 동안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죽음은 여전히 그 쏘는 힘을 갖고 있다. 죽음은 명백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꿈은 끝났다. 일단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이 지나는 폭력과 수치의 충격을 겨우 이겨낸 다음에 자신들의 원래 일자리로 돌아가 근근이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3년이 흥미로운 시간이었음은 의심할 바 없지만, 계속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한 번에 돌이키셨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혜로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10-11절은 부활절 신앙을 이해하는 틀을 제시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고 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상황을 보면 그 의미가 파악된다. 바울의 이 말에는 목격자항적인 움직임이 있다. 곧,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부터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열망하기에 이르는 움직임이다.

부활절 신앙의 도전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라는 요청이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마다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마다 우리의 사역이 발견돼야 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절을 경축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이 처한 곤궁에 대한 사랑의 연민 가운데 지금도 아파하신다. 예수께서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와 더불어 연대하신다는 이 복음은 그분의 부활 생명과 그 생명의 목적과 여긋나는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외면할 수 없다.

세상이 여전히 죽음에 이르는 궤도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는 고난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명을 통해서 그분이 피조세계의 어둡고 고독하며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절망적인 장소들 가운데 계속 거하시며, 자신이 사랑하시는 슬프고 좌악되며 버림받고 소외되

고 가난하며 불행하고 절박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하시는 한, 마태복음 25:31-46에 나오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비유는 여전히 적용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결국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처럼 고난에 들어서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부활주의의 은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사역함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처음 성금요일에 느꼈던 두려움과 위축, 고통과 혼란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성금요일에 들어서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사역이 계속되며 그분의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안다. 처음 성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계속되는 성금요일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돌리어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되는 성금요일을 우리의 사역지로 삼으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고백에 비추어 설교하고 가르치며 치유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특히 무덤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살아계시오다”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부)

예루살렘 ‘성묘교회’ 폐쇄, 재개 조치...

(2면에서 계속)

성지순례자 프랑수아 로슈(29)는 이날 프랑스 24 방송 인터뷰에서 “교회 안에 못 들어가 보고 예루살렘을 떠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캄캄한 새벽인데도 사람

들이 성묘교회로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성묘교회는 로마가톨릭·이집트 정교회·에티오피아정교회 등 6개 교파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사실 이들은 성묘교회 소유권 등 각종 이권 다툼으로 수백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 치고받으며 패싸움할 정도로 갈등이 깊어져 오스만제국의 술탄은 이 교회 대문 열쇠를 기독교인이 아닌 한 무슬림 가정에 맡겼다. 지금도 이 무슬림 가정은 대대로 교회 열쇠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화합 못 하는 교파들이 이번에는 신숙하게 힘을 합쳐 성묘교회 폐쇄·재개 조치를 결정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맞서는 ‘의외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만큼 세균 조치가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만큼 심각했다고, 세계 언론은 분석한다.



예수 죽음 부활! 나의 죽음 부활!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7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뉴햄프셔 화이트 마운틴 산자락에서 노회 목회자 캠프가 있었습니다. 첫날 땅거미가 지는 시간에 파크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벌레 하나가 썩-하게 날아오더니 내 얼굴을 사정없이 씹어버렸습니다. 즉시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땅벌에 쏘인 듯 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 침을 빼려고 거울 앞에 있는데 갑자기 눈이 뵈얇게 흐려지면서 온몸에 기운이 빠져 나갔습니다. 겨우 침대로 가

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육체적 의식이 어둠속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식 감각이 열렸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렇게도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구나!’ 직감되었습니다.

생전에 읽었던 사후 세계를 체험한 이들의 공통점 몇 가지가 되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면 그 순간에 영혼은 ‘빛의 터널’로 손쉽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기억하

는 그 순간에 나의 영혼은 이미 엄청난 속도로 빛의 터널로 빨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천국이 나타난다고 했지? 그 순간 천국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가오던 천국행 터널이 약간 휘어지더니 천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아! 난 오늘 천국엔 못 가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내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우리 교회 본당에 가득 찬 교우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시는구나!’ 직감적으로 깨달아짐과 동시에 모기만한 누군가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열고 밖에 있는 부목사님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의식이 깨어나고 있었는데 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정말 거기에 있고 싶었습니다. 내 몸은 마치 진공 상태에서 벗어난 것처럼 아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셔츠의 단추가 터질듯이 온 몸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기도도, 식도도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없어 죽어있던 그 시간에 아내의 나의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양쪽 귀까지 모두 바늘로 찔러 혈액순환을 위한 응급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의식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응급차를 불러 달라고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20여분이 지난 후 응급 요원

들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축하 인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산소에서 별초하다가 땅벌에 쏘여 죽었다는 기사는 읽어 봤지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리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참나적임을 새삼 체험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는 언제 어디서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만을 위한다면 빨리 가서 주님의 나라에 안기고 싶은 것이 최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코 두려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밤에 그 죽음의 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땀 흘려가면서 고뇌하셨던 대목을 상기해볼 때 예수님은 확실하게 인간이셨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분은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철저한 인간의 뒷입니다. 만

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뿐이셨다면... 죽음 따위야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민감한 주제이지만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의 차등 속에서 예수님은 사후 세계를 몰라야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십자가 지는 것을 두고 변민했을 것입니다. 물론 죽으신 후에는 완벽한 신성의 능력이 스스로 발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을 볼 때에 역시 예수님은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양성의 차등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이셨고 완벽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철저하게 인간이기에 한번 찔름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jykim47@gmail.com

“아들아, 부유함도 한계가 있단다!” 에온, 뉴욕 슈퍼리치 부모(“금수저 부모”)의 남모르는 자녀교육 문제 보도(하)

돈을 벌고 사는 데 필요한 노동, 즉 일자리도 부모를 진퇴양난에 빠트리는데 문제다. 나와 이야기를 나눈 모든 부모는 자녀가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기대했다. 어떤 부모는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자란 아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커서 오히려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지금 재산이면 평생 자녀를 금전적으로 먹여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모들도 대부분 단호히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산이 5천만 달러가 넘는 스카이라인 사람은 특이한 아이들이 돈을 많지만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게으른 잉여 인간’으로 자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겁에 질려 했다. 부모들은 또 아이들이 물질만능주의에 찌들어 돈을 마구 써대는 소비자가 되는 것도 경계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쓸 수 있는 돈에)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집안일을 심부름처럼 시킨 뒤 그 대가로 용돈을 줌으로써 노동과 소비를 가르치려 했다. 수백억 대 자산가인 한 어머니는 6살 난 아들에게 자기 빨래를 직접 하게 했다. 그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집안에서 태어나 누리고 있는 걸 배워가고 감사히 여기도록 가르치겠다고 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노동의 대가

로 용돈을 주며 간단한 경제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학부모들은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도 이를 계속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달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상 물질 모르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다짐은 자녀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케이트는 자신이 어려서 때 집안에서 용돈을 받기 위해 했던 일을 이야기한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이해



‘게으른 잉여인간’ 이나 물질만능주의에 찌들어 돈 써대는 것 경제 주어진 부에 감사하며 책임 있게 부를 행사하며 살 수 있기 바래

하고 그 일을 하면 대가로 얼마를 받고 그렇게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이기에 허투루 쓰지 않고 계획을 세워 써야 한다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파트너인 네딘의 생각은 다르다. 네딘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자랐고, 적지 않은 가산을 물려받았는데, 딸이 동네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알래스카 바닷가에 있는 바다표범을 연구하겠다고 했을 때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한다.

“맞아요. 노동의 가치가 어떤 건

지 몸소 배우는 건 좋은 일이지요. 일해서 돈을 벌어야만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요. 저도 제 아이들이 그런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게념 없는 은수저 같은 아이로 자라는 건 싫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이들의 삶이 정말 재미있고 더 신나는 기회를 쫓기에도 길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좀 다른 걸 했으면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예산에 한도가 있다는 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하다. 직접 한계에 맞닥뜨리게 아이들의 씀씀이를 제한하는 것이

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치열하게 고민하며 안절부절못하는 부모들도 결국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

사립학교의 단점을 줄줄 읊어대며 우리 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던 부모들도 결국 아이가 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면 무슨 이유론든 마음을 바꾸곤 한다.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정하는 한도, 제약이란 아주 사소한 정도에 그친다. 앞서 사회학자 엘리슨 푸는 2009년 저서 “갈망과 소유”에서 이를 가리켜 ‘상징적인 박탈’이라고 불렀다.

런 특권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선물 같은 거라고 말한다. 엘리슨 푸는 일 년에 보통 두 차례 떠나는 가족 휴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호사스럽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흔치 않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알아야 하고,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선물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부모들은 같은 이유에서 아이들이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는 등 방법을 찾는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표현은 한 백만장자 어머니가 썼던 표현인데, 또 다른 부자 어머니는 일부러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 가족과 친분을 쌓으며 자신의 아이가 그 친구네 거서도 놀고 시간을 보내게 한다.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가족은 전부 다 비슷하거든요. 전 우리 가족이 좀 더 평범한 사람들과도 계속 어울리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낯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보통 사람들, 평범한 집안의 자식처럼 커준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검소한 소비자가 되며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완전히 평범한 건 아니며, 자신이 누리는 이 많은 혜택과 특권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속으로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라면 정말 더 바랄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평등하지 않은 분배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부자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어진 부에 감사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기 전에 책임 있게 부를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셈이다.

오늘날 부자들은 물려받은 부든 일해서 쌓은 부든 특권을 노골적으로 누리거나 특권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한 부자로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없는 것 같다.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한 누려도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이슬람 테러조직과 관계 샌디에고 학군에 진실 밝히라 법원명령

작년 4월, 샌디에고 학군 관계자들(San Diego Unified School District)은 미팅을 통해서 학교에서 무슬림들이 차별과 따돌림 당하는 소위, “이슬람 포비아” 이슈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이슬람 테러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Muslim Brotherhood와 깊이 관련 있는 CAIR 단체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주 3월 7일, 샌디에고 연방 판사는 학군이 “이슬람 포비아를-이슬람학생들 차별과 왕따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아래 이슬람 조직인 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CAIR)과 주고 받은 통신 내용들을 제출하라고 샌디에고 학군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알아본 결과, 샌디에고 학군이 CAIR 조직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이슬람 포비아, 모슬렘 왕따 방지” 계획들은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원 달력에 이슬람 휴일 추가

△모슬렘 문화에 대한 새로운 도서관 자료 소개

△모슬렘 중심인 고등학교 클럽을 만들기

△모슬렘 학생들을 위한 “safe spaces(안전한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

△샌디에고 학군 직원과 교사들은 모슬렘 문화 훈련을 꼭 받게 할 것

샌디에고 지역에서 CAIR의 Executive Director로 있는 하니프 모헤비(Hanif Mohebi)는 샌디에고 학군의 이런 교육 정책들이 미국 전역에서 롤 모델이 되어 전국학교들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TheSanDiegoUnion-Tribune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참고로, 샌디에고 학군은 샌디에고 CAIR의 대표 모헤비를 2016년부터 10번 이상 초청하여 샌디에고 공립학교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이슬람 포비아 없애기, 모슬렘 학생 왕따 없애기”라는 명목아래 친이슬람 워크샵

및 교육을 시켜왔으며 테러조직인 CAIR 팸플릿을 매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그 팸플릿에는 모슬렘 학생들을 모독하거나 왕따 시키는 언행을 발견하면 즉각 CAIR에 고발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CAIR 조직의 국가 전무이사인 Nihad Awad는 2016년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서 이슬람 팸플릿을 나눠주는 것은 극히 “종교적 차원의 교육”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 학군의 많은 학부모들의 생각은 CAIR 대표자들과 다릅니다.



한쪽으로는 기울어진 학군의 친이슬람 교육방침과 계획은 “왕따 방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친이슬람 종교 프로그램”처럼 보인다고 하며 수많은 학부모들은 격분해 했습니다.

테러조직으로 알려진 CAIR와 백악관의 그동안의 관계

2016년까지 오바마 전 대통령 지휘아래 오바마 행정부는 CAIR와의 강력한 동맹을 가지고 있었기에, CAIR는 자유로이 백악관 안까지 왕래를 하고 특별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뽑은 미국최초의 모슬렘 국회의원인 Keith Ellison과 Andre Carson은 공립학교 교육에 강력한 친이슬람 교육 정책을 주도해왔었습니다.

동시에 CAIR는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지지로 미국정치와 사회전반에 걸쳐 깊은 관련을 했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며 CAIR가 도약한 그동안의 테러조직 증거물들(돈, 은행, 무기, 테

러단체들과의 동맹)이 셀 수 없이 많이 밝혀지며 트럼프 행정부는 CAIR를 백악관에서뿐 아니라 그들이 활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시켜버리고 이슬람 테러소탕에 전념했습니다.

마침내 2017년 5월에 Freedom of Conscience Defense Fund(FCDF)가 샌디에고 학군을 고소하며 비난하기를 학군은 “새로운 정책을 통해 무슬림 학생들을 특권적 종교 집단으로 설정하고 일반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을 수 있는, 미묘한 역차별적 계획을 CAIR조직과 합세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FCDF의 회장이며 주임 검사인 리말드리(Charles LiMandri)는 샌디에고 학군이 CAIR와 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된다고 하며 이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말드리 검사는 “CAIR가 의도적으로 공립학교에 이슬람 종교를 은밀히 전파하려고 학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다른 종교단체의 대표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기독교 성직자나 유대교 랍비는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논속임(거짓) 약속을 한 샌디에고 학군

이런 항의가 계속되자 작년 7월에 샌디에고 학군은 CAIR과의 공식관계를 끊고 반이슬람 공포증 계획을 재정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학군 관계자들과 CAIR이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는 서류를 FCDF가 찾아냈고, FCDF는 학군의 지난번 발표가 “속임수”뿐이었다고 올해 2월에 FCDF가 다시 법정 가져분을 신청했습니다.

FCDDF가 새롭게 발견한 내용

작년 8월 CAIR 대표 린다 윌리엄스(Linda Williams)가 샌디에고 학군 지역 감독 앤드류 샤프(Andrew Sharp)에게 학군 교과과정 부서에 CAIR를 초청하여 자료를 나눠주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이메일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자료 안에는 놀랍게도 CAIR이 스스로 작성한 무슬림 왕따 리포트가 포함돼 있고 교과서 과정까지 바꾸고 그에 대한 교육 자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FCDF는 “종교단체”라고 자칭하는 CAIR을 학교에 초청하여 학교 교과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미국 헌법과 캘리포니아 헌법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샌디에고 학군에는 “유대인 문화를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사순절 동안 천주교 학생들을 수용하는 교육 자료도 없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협력하는 것도 없다. 따라서 샌디에고 학군은 그들의 권력과 명성과 돈을 오직 한 종교 이슬람에게만 집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FCDF의 요청에 따라 샌디에고 학군이 CAIR과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증거물로 오는 4월 9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FCDF는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샌디에고 학군이 CAIR과 앞으로 교류하는 것을 법원이 막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이슬람을 제대로 알도록 자녀들에게 교육하며 모슬렘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사상과 종교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교육으로 자녀들이 속게 된다면 그 책임은 교회와 학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샌디에고 공립학교 학생들을 친이슬람 주입 프로그램에서 보호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메데 파사를 멸망시킨 헬라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왜 정복한 나라에 헬레니즘 문화를 심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찍 죽었다는데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에서 이희은

A: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파사는 다니엘서 8장 20절을 보면 두개의 긴 뿔을 가진 수양 즉 메데와 파사의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메데와 파사의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수양의 뿔 모양을 한 투구를 썼다고 합니다. 메데와 파사의 나라 중에 두 뿔 중에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데가 먼저 있었으나 후에 파사 나라가 메데를 점령하여 합병시키고 연방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일어난 파사가 더 강했음을 말해줍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이 남과 북 서쪽으로 찌르며 팽창할 때 갑자기 서쪽에서 수염소 한마리가 뛰어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수 염소는 헬라제국을 가리키며 그 두 사이에 솟아있는 뿔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불과 21세의 나이에 그의 부친인 마케도니아 빌립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백전백승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정벌 때 적 화살에 맞아 사망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정벌국마다 언어문화 심어

수염소는 수양을 땅에 엎드려 뜨리고 짓밟았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군은 긴 방패와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5.5미터나 되는 긴 창으로 밀집대형을 만들어 무서운 속도로 바사군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거기에 다 기병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적병을 공격했는데 이 공격방법은 1500년이 지난 후에도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한 로마의 비잔틴 군대도 사용하였습니다.

알렉산더의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소 알렉산더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헬라사람만이 지성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야만인들’서 당연히 헬라가 전 세계를 통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주변사람들에게 헬라의 말과 문화를 주입시키십시오. 그러면 왕께서는 전 세계를 쉽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지면을 돌아다니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모든 땅을 정복하리라.” 그는 자기의 결심을 실행해서 표범같이 빠르게 순식간에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메데 파사의 넓은 영토를 빼앗았고 8년 만에 순식간에 전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끄는 헬라 군대는 한 번도 싸움에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진군하여 싸우던 중 알렉산더 대왕은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에 맞습니다. 그때 화살에 맞은 상처 때문에 알렉산더는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는 그 당시 거점이었던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복한 땅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헬라어와 헬레니즘 문화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게다가 옆친데 뒤통격으로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습니다. 화살에 맞은 상처에다가 열병에 걸리고 술까지 마셨으니 면역력이 떨어져 그는 33세의 나이에 아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 4세와 헤라클레스는 모두 암살을 당하고 사후에 그의 영토는 네 장군이 네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Diadochi(Successors)”체제라고 부릅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하루쿠(HARUKU)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금도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00여개의 뚜렷한 인종들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남동쪽 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호주, 유럽, 아시아 대륙 사이의 해로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연계해 있다.

하루쿠종족은 몰루카스(Spice) 섬에 있는 한 작은 섬에 위치해 있다. 이 섬의 연계는 인도네시아의 동쪽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술라웨시(Sulawesi)와 뉴기니아(New Guinea) 사이에, 그리고 티모르(Timor)와 필리핀(Philippines)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연계 안에 있는 북쪽 섬들은 할마헤라(Halmahera: 모루카스에서 가장 큰 지역), 모로타이(Morotai), 테르나테(Ternate), 티도레(Tidore), 마키안(Makian), 바칸(Bacan), 오비(Obi), 술라(Sula)다. 남쪽 섬들과

중앙의 섬들은 부루(Buru), 세람(Ceram), 암본(Ambon), 반다섬들(the Banda Islands), 카이(Kai), 아루(Aru), 타니바르(Tanimbar), 바바르(Babar), 키사르(Kisar), 그리고 웨다르(Wetar)를 포함한다.

삶의 모습

북쪽 몰루카스의 정향나무와 중앙 섬들의 육두구는 유럽이 Spice 섬에 대해 듣기 전에 아시아에 거래됐었다. 1511년 포르투갈이 도착함으로써 수십년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싸움들이 이 기간 동안 많은 생명을 잃게 했다. 승리했던 독일은 많은 이익을 얻었고, 그러나 18세기 말엽에는 향신료 상업이 거의 사라졌다. 그 결과 몰루카스는 더 이상 그 가치를 가질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 문화는 많은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합쳐진 문화다. 인도

의 힌두와 불교 사상이 인도네시아에 깊은 영향을 행사했고, 그 나라의 건축과 조각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라비아 영향은 13세기 이래로 변성했고, 대부분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라 영향을 받았다. 여러 섬들이 또한 남동쪽 아시아와 폴리네시아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독일 사람들의 유럽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기후는 열대성기후이며, 두 차례의 우계를 갖고 있다. 11월부터 3월까지의 우기와 6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가 있다. 이 기후는 이 우계 사이에 좀 더 온화하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화산의 흙은 농작물이 자라기에는 이상적이다. 이는 숲이 풍부하고 땅의 2/3를 차지한다.

지진은 몰루카스에서 자주 일어나며, 대부분의 섬들은 산악지역이다. 테르나테(Ternate)와 반다

(Banda)와 같은 다양한 섬들은 활화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니바르(Tanimbar)와 아루(Aru)는 낮고 습지가 많다.

몰루카스의 기후는 열대성이며, 다양한 지역에서 매년 80-150인치의 비가 내린다. 어떤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섬들을 전반적으로 덮고 있는 열대다우림이 고르게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지금 땅이 경작되고 있다. 또한 사반나에 땅들이 그 연안에는 종종 망그루브 늪지들이 주변에 있다.

기독교인과 무슬림들은 연안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신앙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륙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령신앙인들이다. 음식은 사냥과 어업과 사고(sago)풀을 모아서 얻는다. 코코넛은 광범위하게 자라고, 주된 수출은 코프라(copra)와 숲에서의 생산물과 향신료와 생선들이다.

신앙

종교의 자유가 인도네시아 의회에 의해 보장됐다. 다양한 형태에서의 이슬람은 이 국가의 가장 지배하는 신앙이다.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다. 하루쿠는 95%가 무슬림일지라도 그들의 4%는 기독교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루쿠는 그들 자신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기독교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에게서 현재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없다. 성경번역과 그들 언어로 된 예수 영화 모두가 필요하다. 열심 있는 중재와 선교사역이 믿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 필요할 것이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먼 지역의 섬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다음세대가 문제? 오히려 적극적 전도자...”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가 그들의 부모층인 ‘베이비붐세대’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전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겠다는 정도의 의지만을 삶의 동력으로 여겼다면, 이들 젊은 세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상(理想)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다음세대를 잃을까 고민에 빠진 한국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1990년대 이후 출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한 젊은이들을 지칭한다.

미국 최대 대학생선교운동단체 ‘펄스(PULSE)’의 커뮤니케이션 팀장인 수전 해리스는 13일 기독교매체인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밀레니얼세대나 Z세대(Generation Z)와 같은 신세대는 무기력하지 않다”면서 “이유나 대의명분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갖게 되면 엄청난 열정을 발휘해 주변을 동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한 근거는 무엇일까. 그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면서도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지 못한 신세대의 성향에 주목했다. 해리스는 “과거 세대들은 자신들을 큰물에 사는 작은 고기집이라고 여겼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이라 여긴다”고 강조했다. 즉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 열기가 젊은 비기독교인에게도 쉽게 전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펄스는 이런 젊은이들의 특성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06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닉 할(34)이 노스다코타대학 캠퍼스에서 찬양 이벤트로 시작한 펄스는 이제 미국 최대 규모의 복음주의 운동이 됐다.

펄스는 기존 교회를 기피하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단조로운 예배나 설교 대신 힙합이나 팝송 등 대중문화를 접목한 무료공연을 열었다. 시도는 주효했다. 2016년 7월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래래(Lecrae), 앤디 미네오(Andy Mineo), 테다쉬(Tedashii) 등 유명 크리스천 힙합 아티스트들과 크리스천 설교가들이 모이는 공연을 계획했는데 40만여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펄스는 오는 5월 18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US뱅크스타디움에서 ‘펄스 트윈 시티스’라는 찬양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해리스는 “450여개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며 “각 교회에 속한 젊은 기독교인 한 명이 비기독교도 친구 한 명을 공연에 데리고 온다면 아마 수만명의 비기독교인이 복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성공한 교회개혁운동엔 □□□ 있다

크리스챤너티투데이(CT)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흥했던 교회개혁운동에는 반드시 세 가지 성공요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빌리그레이엄센터의 실무 총책임자이자 교회리더십 관련 저자인 에드 스테처가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미국 교계 상황을 분석해 밝힌 것들이다.

당시 미국에선 10여년간 수천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특히 감리교와 침례교의 교회 개혁이 활발했다. 스테처는 우선 “성공적인 교회 개혁은 기도, 말씀 등 영적 원리가 기본”이라며 “여기에 더해 성공사례를 알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성공요소는 “교회를 설립할 자유”를 꼽았다. 당시는 교회를 세울 때 교단의 허가를 필요 없었다. 은혜 받은 이들이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으며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공동체에서 소명 받은 이들이 또 나가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웠다. 이들은 교단이 아니라 모교회에서 파송 받았다.

“전면적인 신학교육의 부재”는 교회 개혁에는 되레

우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1700년대 후반 목회자들은 교회 개혁을 위해 공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다. 다른 목회자,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며 신학을 배웠다. 인근 교회·직장에서 동료나 신앙의 멘토 도움을 받았다. 신학 지식은 부족했지만 그들은 소명과 열정을 갖고 많은 교회를 세웠다.

‘목회자의 직업’도 없었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졌다. 많은 이들이 농사를 지었다. 주중엔 밭을 일구고 주말엔 설교를 했다. 목회자가 돼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통한 사례비는 필요 없었다. 재정과 상관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테처는 “기존의 교회개혁 및 성장방법을 버리고 이전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게 아니다”면서 “하지만 지금도 아시아·아프리카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더 발전적인 교회개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량한 쿠르드족이 죽어가고 있다...

터키군이 쿠르드족 반군을 제거하기 위해 시리아와 터키 국경지대인 아프란에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현장 선교사와 현지 교회들이 “선량한 쿠르드족이 죽어가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동 A국에서 사역 중인 B선교사는 14일 “아프린 일대 쿠르드족은 테러집단이 아니라 터키 정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라며 “아프린은 시리아 내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던 안전한 곳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국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가운데 회심자 상당수가 아프린 출신 쿠르드인이다. 시리아 내전 이후 개종자는 1만명이 넘는다”며 “이들은 아프린으로 돌아와 교회를 세우려 했는데 갑작스러운 전쟁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이자 나라 없는 민족이다. 인구는 3000만~3500만명으로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메디 사람(사13:17, 단5:31)의 후예로 전해지며 BC 9세기 이후 아람 제국에 편입돼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쿠르디스탄이란 이름의 자치구를 얻기도 했으나 국가로 형성되지는 못했다.

1차 세계대전 중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믿고 오스만튀르크와 싸웠다. 하지만 배신당한 채 전 세계 63개국에 흩어졌다. 현재 인구의 73%가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란 4개국에 몰려 있다. ‘이슬람국가(IS)’를 몰아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B선교사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터키군 중 60%가 쿠르드 징집병이었다는 자료를 접했다”며 “이들은 정글 같은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용만 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지금은 터키가 쿠르드를 공격하고 있고 (터키의) 혈맹인 한국은 자주포를 수출해 쿠르드인들을 죽이는 데 협력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하나님은 쿠르드족 영혼들도 사랑하신다”고 덧붙였다.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은 아프린 쿠르드족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아프린 선한목자교회 발렌타인 하난 목사는 기도 편지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앞세운 터키 군인들의 공격 때문에 병원은 부상한 시민들로 가득차다”며 “많은 시민이 피난소에 머물다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하난 목사는 “난민촌에는 600가정의 난민들이 있다. 공격이 멈추도록 기도와 도움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시리아 알레포 복음주의교회 압달라 훌스 목사는 “우리는 터키군이 범죄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전 세계 인도주의 단체에 간청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을 소멸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현지 선교사들에 따르면 쿠르드족은 산악지대에서 오래 살았고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탄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산 이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속담이 있다. 선교사들은 “국제 정치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이들은 또다시 홀로 서 있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北선박, 인공기 페인트로 지우고 무역제재 회피

북한이 국제사회의 무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에 그려진 인공기를 지우거나 배 이름을 교체하는 등의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지난 한 해에만 최소 2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다이아몬드와 와인 등 사치품도 다량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교묘한 제재 회피 기술로 가장 최근의 유엔 제재 결의안조차 대부분 우회로가 확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휴 그리피스 대북제재위원장은 미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은 18세기 해적선들이 해적 행위를 감추기 위해 했던 방식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 천마산은 지난해 12월 동중국해상에서 시에라리온 국기를 단 배와 해상에서 원유를 옮겨 실을(환적) 때 배에 그려 있던 인공기를 페인트로 지우고, 국제적 표식을 위해 부여된 숫자 3도 8로 바꿔놓았다. 북한 선박들은 또 주로 밤에 해상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제재를 회피 나갔다.

북한은 밀수를 위해 전 세계 북한대사관을 ‘물류 허브’로 활용했고, 밀수 및 군 전문가들을 대사관 직원으로 위장해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 파견해 왔다. 북한으로부터 군사기술을 전수받거나 무기를 사들인 국가는 시리아 미얀마 에리트레아 수단 탄자니아 등이다.

사치품 수입도 많아 지난해에는 인도로부터 51만 달러여치의 다이아몬드를 수입했다.

또 칠레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에서 수십만 달러의 와인을, 독일과 불가리아 등에서도 수십만 달러의 화장품과 향수를 사갔다.

스웨덴 ‘미국인 석방, 북미 정상회담 조건 뒤흔던데’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스웨덴 외교장관이 19일 밝혔다.

스웨덴은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뒤 유력한 회담 중재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이달 15-17일 스웨덴을 방문해 마르그트 발스트림 외교장관을 만나고 돌아갔다. 평양에 대사관이 없는 미국은 북한 내 미국인 영사 업무를 스웨덴 정부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다.

CNN은 앞서 발스트림 장관이 리용호 외무상과 만났을 때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유럽연합(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발스트림 장관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그런 요소들이 관련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지금은 많은 조건을 달거나 전제 조건을 깨בל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김동철, 김상덕(토니김), 김학송 씨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을 ‘간첩 행위’ 혐의로 억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줄곧 이들의 석방을 북한에 요구해왔다.

발스트림 장관은 CNN 보도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가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을 중재했는지 묻는 말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 영사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스트림 장관은 4월 중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고 5월 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중간선거 민주당 두자리수 우위”

오는 11월 6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현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지율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오름세인데도 민주당 공화당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미 언론은 평가했다.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0-14일 미 전역 등록 유권자 1천1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원한다는 응답률은 50%로 공화당 지배 의회를 원한다는 답(40%)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조사 당시의 양당 지지율 격차(6%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공화당 지지율은 18-34세 젊은 층(민주 59%, 공화 29%)과 여성(민주 57%, 공화 34%)의 경우 23-30%포인트로 큰 격차를 보였다.

대졸 이상 학력의 백인 유권자는 55% 대 42%로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반면 남성은 공화당 지지율이 47%로 민주당(44%)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대졸 이하 학력 백인 유권자는 50% 대 39%로 공화당 지지율이 11%포인트 높았다.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찍은 유권자가 64%,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57%로 민주당 지지층의 관심도가 좀 더 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3%로 지난 1월보다 4%포인트 올라갔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435명)과 상원(100명) 3분의 1을 다시 뽑고 주지사 선거도 여러 곳에서 실시된다.

지난 7일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 텍사스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실시됐다.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인 ‘레드 스테이트’ 텍사스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와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완승한 데 이어 최근 펜실베이니아 연방하원의원 보선에서도 승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발표에도 철강 도시 피츠버그에서 공화당 후보가 패하자 공화당 내부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다.

메릴랜드 교교서 총격사건…총격범 포함 3명 중상

메릴랜드 주의 그레이트 밀스 고등학교에서 20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은 학교를 봉쇄한 상태다. 범인이 이 학교 학생인지 등 신상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세인트 메리 카운티 보안관은 MSNBC에 총격범을 포함해 3명이 중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총격 사건은 수업 시작 시각인 오전 8시가 조금 지나 발생했으며,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학생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학교 학생 조너선 프리스는 CNN에 “사건은 수업이 시작한 직후 정말 빠르게 일어났다”면서 “경찰이 왔고 정말 빠르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사건 발생 후 인근 레오너드타운고교로 대피했다.

그레이트 밀스 고교는 수도 워싱턴DC에서 약 70마일(110km) 거리에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4일 17명이 숨진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텐 더글러스 고교 총격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약 5주 만에 발생했다.

또 당시 참사의 충격 속에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한 상황에서 더글러스 고교 생존자들이 수도 워싱턴DC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으로 명명된 총기 규제 촉구 집회를 계획한 날을 나흘 앞두고 사고가났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47-정철래(1881-1950)

정철래는 1881년 9월 25일에 한국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났다. 하와이로 이주한 그는 1914년 하와이 마누아벨리에 있는 태평양학원에서 공부했고, 1918년 7월에 오아후 섬의 와이아루아에서 1차 세계대전에 출전한 유일한 한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1910년부터 1912년까지 하와이 지방총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그가 1920년 1월 황사용과 방화중 등 30여 명과 함께 한인공동회를 조직하였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하와이 국민회 행정부를 재조직할 전권을 위임받은 특별위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했다.

에 더할 수 없는 비극 참극의 정상에 빠진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25전 이상 조금씩 생각나는 대로 구제토록 광고했다. 이에 1925년 1월에 이반도, 야곱, 노성애, 김앤드류, 김해용, 김요한, 우준이, 박이디, 권병식, 권현식, 권정식, 권은식, 김요백,

전을 기부하여 총 13원을 모금하여 보냈다. 이는 정철래의 지도로 가능했을 것이다. 1925년 1월 맥스웰에 거주하던 이진섭이 자동차의 앞바퀴가 전복되므로 중상을 입고 윌로스 병원에 입원하여 1주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다음 달에는 맥스웰에 사는 송덕용의 장남 송강균과 상항에 거주하는 박승렬의 딸 박알리스가 상항에서 결혼하였으니 정철래의 위문과 축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달 3가 1123번



정철래, 1913년경

음 시무하던 1923년의 출석 교인은 60명이었고, 이듬해는 67명이었는데 이 중 11명은 비활동교인이었다. 삭도/맥스웰 순회 목사 목사에 관한 몇 가지 시험을 치른 후 1925년 10월 25일에 정철래는 주일 버클리 에벌유니버시티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목사안수를 받았다. 다음 달 8일 오후 3시 반에 교회당에서 목사안수 축하회가 성대하게 열렸는데 산진해미를 갖춘 만찬회에 배석하여 기쁨을 나누었다. 그런데 그 맥스웰에 거주하던 송성균이 득녀했으니 11월은 기쁨이 두 배나 되었다. 1926년 삭도에 거주하던 동포로는 아육형, 신달윤, 김병건, 신영일 등이 있었고, 맥스웰의 송덕용, 박을성, 이재수, 송이균, 정완섭, 이영서 등이 벼농사를 하였고, 윌리엄스의 김지선, 강대균, 김창현, 한성준, 박준화, 심점록, 한류경, 이공렬, 홍종술 등도 벼농사를 하였다.

원과 전은 달라와 센트를 일컫는다. 그해 7월 정철래는 신한민보에 삭도교회 광고를 게재했다. 교회 주소는 오(0) 스트리트 323번지였다. 1927년 10월 상항에서 개최한 한인 남미미교회 연찬회는 정철래 목사의 사면 청원서를 가결했다. 정철래가 목사가 된 후 삭도/맥스웰 구역의 교인통계는 1925년에는 48명이 출석했고, 1926년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정철래가 사임한 후인 1927년에 맥스웰 교회는 문을 닫음으로써 삭도/맥스웰 구역이 삭도 구역으로 재편되었고, 그해 임정구/김탁 목사가 보고한 대로는 48명이 출석했다. 그는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순회전도사로 2년간 사역했고, 1925년부터 1927년까지 순회 목사로 2년간 사역했음으로 총 4년간 두 지역의 한인교인을 섬겼다.

기타 교회 방문

정철래는 오를랜드교회와 상항교회 등 한인교회를 방문하였다. 1925년 8월 그는 렉사이드팍에서 있었던 임정구 목사의 오를랜드 한인교회 소창회에 참석하여 본

인도함이 그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함이라'고 권고하였다.

독립운동과 동포구제

정철래는 교회를 섬기던 기간에 독립운동과 동포구제에 노력했다. 대한인국민회 삭도 지방회 회장, 재무 그리고 민립대학 평의원을 역임했다. 그는 의무금과 인구세를 납부했고, 서재필 박사 여비를 보조했다. 대한인 국민회 최진하가 삭도에 도착했을 때 정철래는 그의 두 손에 두 곱을 쥐여주며 '하나님 실과요 하나는 점심이니 가면서 차 안에서 자시오'하였는데 최진하는 '십 분간 정거에 잊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리요. 주시는 대로 일일이 다 받아 가지고 총총히 구별하고 삭도를 떠났다'고 정철래의 따뜻한 마음을 회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간도참상구제금, 삭도에 거주하던 박도은을 위한 병원구제금, 내지 수재 및 기근 구제금을 보내 동포구제에도 힘썼다. 아래에 소개한 1923년 삼일절 행사에서 한 그의 축사의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나라 사랑을 느끼게 한다.

“상전이 끊어보시고 선조가 감응하시사 상서 구름이 일어남이여. 반도 하늘에 독립의 큰 사명이 내렸고 어진 바람이 움직임이여. 조선호에 부활의 새 복음이 왔도다. 신선한 광채는 5천 년 조국의 권영을 민사함이며. 3월 1일 이날이 있고 정당한 의사는 2천만 민중의 성충을 드러남이여. 33현 더불어 날도다. 거룩한 대한독립을 선언하던 당시에 굉장한 만세 소리가 그 얼마나 장쾌하였느냐.....

싸우면 자유의 영성이 있고 싸우면 독립의 위권을 누릴 우리들은 축사의 잔을 단에 올리며 추오는 의백이 한가지로 느끼고 기념의 기를 높이 달매 한남한년의 산피가 끓는도다. 유유 창천이여 우리 민족을 세우사 거룩한 독립자유로 영원무궁하옵소서.”

이후

교회를 사임한 정철래는 글림쓰에서 크게 벼농사를 하면서 신앙운동과 독립운동과 동포구제를 이어갔다. 그는 1950년 5월 29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리조나 주 피닉스의 그린우드 기념 론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제71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 국가보훈처는 정철래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damien,sohn@gmail.com

1923년부터 삭도/맥스웰 순회 전도사와 목사로 4년간 섬겨
교회사임 후 농사지으며 신앙운동과 독립운동, 동포구제 힘써

삭도/맥스웰 순회 전도사

정철래는 1920년 9월 남경호선편으로 상항에 상륙하였다. 그 후 1922년에 그는 삭도 국어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이듬해인 1923년 삭도/맥스웰 구역을 담당하는 순회전도사로 임명되었다. 1923년 7월 삭도 인근 윌리엄스에 거주하던 박을성의 부인과 두 자녀가 귀국하였으니 이를 위한 심방이 있었겠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독감에 상혈증이 생겨 클래라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기도 했다. 1924년 8월 대한인여자에국단 삭도지부 창립 기념 경축회에 참석한 그는 본 애국단원이 애국가를 부른 후 기도순서를 담당했다. 이날 본 애국단 단장 이영애와 역사 진술을 한 권영복, 애국단 장래를 강연한 박흥순은 삭도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1924년 국민회 구제부가 한재, 수재, 풍재 그리고 총재 등을 인하여 추수를 전수 못 한 곳이 많고 풀뿌리와 나무재와 도토리로 목숨을 연명하던 차에 엄동설한



광고, 신한민보
1927년 7월 7일

김지식, 박월림, 김자선, 김야곱, 강노아, 우캐틀린 등 1세로부터 14세에 이르는 삭도교회 주일학교 생도 19명이 '캔디 사 먹읍'을 모아 많게는 1원을, 적게는 55

지에서 김종학이 경영하던 양찬관을 김지선, 김경신, 우경애, 이드보 등이 인수를 맡았는데 정철래가 개업 예배를 인도했을 것이다.

정철래가 본 순회구역에서 처



정철래 목사 묘비

1927년 3월 정철래는 맥스웰 인근 윌리엄스에 거주하던 고흥순이 별세하여 장례를 주례했다. 그날 그는 부조금 3원을 기부했는데 장례 후 후문에 따르면 고씨의 급료 19원 80전, 식사비 6원 72전과 의원비 7원 50전을 감하니 5원 58전이 남아 부조금 70원을 합하여 75원 58전 중 장비 60원과 장례식에서 자동차 기름값으로 50전을 감한 15원 8전을 신한민보에 기부하였다. 화폐 단위

교회가 풍부히 전열하여 놓은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 앞에서 식사기도를 담당했다.

이듬해 1월에는 그가 상항교회에서 전도하였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는 말씀을 봉독한 후 그 성경의 뜻을 해석하여 일반 교우에게 '예수의 진리를 각오하라 권고하며 예수 안에 있으라'고 권면하였고, 특별히 남의 부모 된 이는 그 자녀를 예수의 교훈대로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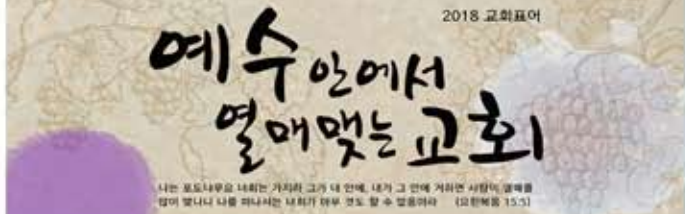
롤업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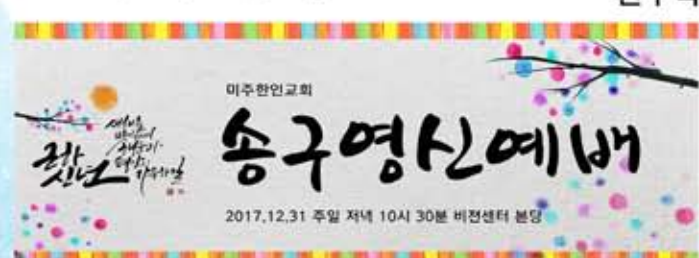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현수막



미주한인교회
송구영신예배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본당



성탄 축하예배
Merry Christmas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리더십 코멘터리 (61)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사람을 이끄는 힘, 살리는 힘

현대인들이 원하는 리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로버트 S. 캐플런(Robert S. Kaplan) 박사는 경영 실무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캐플런은 오랫동안 기업 현장에서 활약하며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이끄는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를 그의 저서인 '사람을 이끄는 힘'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집착하지만 정작 기본기에는 소홀하다. 현대인들은 4가지의 기본기를 가진 리더를 원한다. 정직, 미래지향, 동기부여,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을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대인들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전과 방향 감각을 갖고, 열성과 열정 그리고 전문능력과 함께 리더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리더를 원한다.

모든 것의 근본은 정직이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큰 정육점을 열고 좋은 고기를 호텔에 납품하는 업자가 있었다. 그런데 호텔 주방장이 그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요구했다. "우리 호텔에 당신의 고기를 넣으려면 나에게 뭘 좀 가져와야 된다." 여러 차례 뇌물을 요구했지만 납품업자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들이다.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납품하게 된다. 정직이 나의 경영 철학이다." 이 말을 들은 호텔 주방장은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 그때부터 납품을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나쁜 고기를 납품한다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고기를 주문하던 회사와 호텔에서 납품을 받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육점은 망하고 말았다. 정직 때문에 정육점은 문 닫게 된 그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오픈했다. 그는 정직이라는 표어를 가게 문 앞에 걸어놓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정직한 모습이 입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면서 사업이 점점 확장되어 갔다. 이것이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인 JC Penny의 탄생스토리이고 그 주인은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 J.C. 페니였다. 그는 죽을 때까지 미국 전역에 1,660개의 점포를 세우며 정직의 표상이 되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절벽으로 몰고 가는 나쁜 리더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들은 타이틀은 리더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 불과하다. 모든 것의 근본은 정직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정직을 통해 사람을 이끄

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다시 태어나라

술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다. 술개는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한다. 술개는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된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절고 두껍게 자라 날개 가 매우 무거워 하늘로 날아오르기 힘들어진다. 이때 술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만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런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술개는 산 정상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통스런 수행을 시작한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돌아난다.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그리고 새로운 발톱이 돌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이렇게 만년에 지나 새 깃털이 돌아난 술개는 완전

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다.

사람을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함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참다운 지혜를 갖추어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시대를 이끄는 힘은 지혜

어느 나라에 난폭한 왕이 있었다. 전쟁 중에 한쪽 눈을 잃어 외눈박이가 된 왕은 성격이 포악해졌다. 그는 온 나라 백성이 자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위엄이 넘치는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다. 왕은 대신들에게 명해 자신을 위대한 왕으로 그릴 수 있는 화가를 찾게 했다. 나라 제일의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 바쳤다. 초상화를 받아 본 왕은 분노하여 소리를 질렀다. "왕의 애꾸눈을 그려 이렇게 흉한 얼굴로 만들다니 무덤하도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그 불쌍한 화가는 왕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새로

운 화가가 선발되어 초상화를 그렸다. 그는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그려 바쳤다. 왕은 또 다시 분노하며 소리쳤다. "아니, 어찌 이것이 나의 진짜 얼굴이란 말인가?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첫 번째 화가가 왕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려 화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두 번째 화가는 왕의 얼굴에 없는 눈을 그려 넣었던 것이다. 세 번째 화가가 또 다시 뿔뿔히 목숨을 걸고 초상화를 그렸다. 이 화가의 그림을 받아본 왕은 흠뻑 젖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오, 매우 훌륭하도다. 저 화공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세 번째 화가는 왕의 옆모습을 그려 사실적이면서도 보기 흉한 외눈박이 눈을 가리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었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무리 정직하고 환골탈태의 결단을 가진 사람이라도 시대감과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도태되어 죽고 만다는 것이다. 죽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사람을 이끄는 힘이 되지 못한다. 사람을 이끄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힘을 갖고 마법 같은 홀인을 기록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무엇인가?

에너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살리는 에너지와 죽이는 에너지가 그것이다. 어떤 사람은 살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죽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멸절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에너지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에너지가 나올까? 사람 안에 생명의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는 살리는 에너지로 사용되고, 죽음의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는 죽이는 에너지로 사용된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무엇인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격려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좋은 격려와 칭찬을 어떻게 사용해야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위기의 순간에 남긴 칭찬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킨다.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오래 전에 인기를 끌었다.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내 안에 있는 따뜻한 힘이 세상을 바꾸고 잔잔한 미소와 환한 웃음이 사람을 살린다.

리더에겐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경청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남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일이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권위나 힘은 사람을 살리라고 위임하는 것일 뿐, 군림하는 것은 폭력에 불과하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힘을 위임 받는 것이고, 위임 받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살리라는 명제이다.

칭찬의 힘은 위대하다. 칭찬은 보약과도 같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준 만큼 그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준 만큼 그들을 좋아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사랑받은 여인

오직 내 사랑은 그대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팔이요 그 낯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아가6:9).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7:10).

자신에게 속한 세상적으로 갖춘, 외적인 조건이 넘치는 여인네들은 무수히 많지만 저들을 다 밀어놓고 유독 조용히 양 떼를 치며 소박히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솔람미 여인의 순수한 모습에 반해버려 저를 안는 솔로몬왕...

세상의 부와 명성, 잘생긴 외모에 지혜까지 완전히 갖추어 여자들의 슈퍼스타 우상인 솔로몬 왕이 솔람미 여인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네게 반했노라 너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쫓아 다니는데 마다할 여자들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설령 입술에 바른 소리라 할지라도 뿌리칠 수 있겠는가?

하나 솔람미 여인은 도무지 이것이 진실인지 믿어지지 않고 진실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음가운데 흠뻑하였던 꿈에도 그리던 멋쟁이 솔로몬 왕이 진정으로 내게 사랑에 빠졌는지? 정말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와 너만의 사랑으로 간절히 누리고 싶어한다.

기라성같은 믿음의 거장들과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며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왕 예수님이 솔람미 여인같이 보잘 것 없는 나를 정말 예수님이 본인의 고백같이 그렇게 정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반신반의로 나를 그리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 이기를 바라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둘다리 두드리듯 그리고 조심스레 하나님께 나아가며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 곁으로 빨리 달려와 주세요. 간절히 목말라 사모하며 애타한다.

주님이 마련한 우리를 하늘의 각양 좋은 것으로 채워 주려고 그토록 애타게 주님께로 그저 달려오라지만 너무도 바보스런 우리는 모든 것이 넘치는 왕궁이 아닌 자신이 양떼를 치는 작은 포도원에 정성껏 온갖 향내 나는 꽃을 피우며 각양 과일로 준비해 자신의 소박한 삶 속으로 빨리 와주시라고 왕을 기다리는 솔람미 여인처럼 하늘 왕궁의 최고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이성의 소원이나 풀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노라,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당신이 정녕 나를 사랑하시면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곁으로 달려와 나를 기쁘게 하신라, 이 세상의 소원 사랑을 놓지 못하고 채워 주시라고 목마름을 애타게 부르짖는다.

하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세상적으로 모양새를 갖춘 잘난 이들에겐 관심이 없고,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꾸밈없이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그런 이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들은 외적인 자격을 많이 갖춘 이들로 보여 자신의 눈에도 내놓을 것이 없어 보이는 약한 이들과 가까이에서 저들이 그의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이기까지 왕 중의 왕 예수님이 무궁한 인내로 기다리며 사랑의 손을 내미신다. 갈수록 애타하며 내미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 아니신가....

이 기막힌 하늘 사랑이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 소원 사랑에 찌들어 하나님사랑을 세상적인 자기중심적 만족의 나의 들러리로 끌림 없이 요구하며 자기 식의 사랑이 아니라서 당신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7)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시는 사랑을 도무지 받으려 들지 않는 너무도 멍청한 우리들을 그래도 그래도 눈을 떠 받아들이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짝사랑... 나는 언제까지 애타는 나의 신랑님 나의 주님을 이토록 밀어 내려나....

heeenlee55@hanmail.ne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미투(Me Too) 운동에 대한 교회의 시선

연일 계속 되는 ‘미투’(Me Too) 운동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마치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지고 있다. 제 19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명이었던 한 정치인이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폭로되면서 30년 정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마치 산불이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미투 운동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듯 하다.

필자는 지나온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정치권과 기독교계가 벌였던 두 가지 운동을 기억하고 있다. 먼

저 정치권이 벌였던 운동은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운동이다. 그 당시에는 각종 범죄들이 수그러드는 효과가 나타났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당시 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하고 빈번하게 범죄 행위들이 나라 전체에서 발생해오고 있다.

기독교가 벌였던 운동은 1987년 12월에 조직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기관이 있다. 기독교 스스로 윤리를 실천하는 운동을 통하여 윤리적으로 보다 깨끗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 이바지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2010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회원 총회에서 대표 되시는 분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실패를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윤실의 운동이 실패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정직운동과 검소, 절제 운동을 일으켰지만 사회는 별로 정직하거나 검소해지지 않았다. 자습자박이다. 우리가 더 정직하고 검소하고 절제해야 한다.”

정치권의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운동도 기독교의 윤리실천운동도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벌였던 운동이 실패로 끝난 것은 받아들이기에 그

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기독교가 벌인 윤리실천운동이 실패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일은 실패로 나타난 운동 앞에 제시하는 대안책이다. 23년 이상 벌여왔던 윤리실천운동의 실패에 대한 대안책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이전보다 더욱 정직하고 더욱 검소하고 더욱 절제하는 운동에 매진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23년 이상을 정직과 검소와 절제 운동에 매진하여 왔지만 실패로 드러났다면 그 다음 대책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윤리실천의 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마음속으로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 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뒤돌아서면 어느새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던 죄 된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큰 죄책감을 느꼈다. 그 죄책감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 안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자신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 무엇인가가 “죄”라고 말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7:20).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죄 앞에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자신에 대하여 한없이 절망하다가 그 절망을 벗어날 출구를 발견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7:24-25). 사도 바울이 발견한 출구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당신 안에 있는 죄가 당신이 마음먹은 일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자아(Self)’이다. 종종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배경에는 육신의 자아가 죄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하여 자신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윤리실천의 길이 있다. 이것

은 육신의 죄 된 본성에 둘러 쌓여 있는 자아를 날마다 죽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피흘림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히9:22)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육신의 자아를 죽일 방법이 달리 없음을 알려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육신의 자아를 죽일 수 있다.

기독교윤리가 실천 되어지는 길은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을 벌여서 되어질 일이 아니지 않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능력으로 육신의 자아가 죽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사활을 걸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붙잡아야 할 것이다.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교회는 다시 한번 그리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오직 여기에 윤리실천의 길이 있다고 선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세이언 제7차 정기총회, 회장 김순관 목사 연임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이하 세이언, 회장 김순관 목사) 제7차 정기총회가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한국 강화 로얄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고전9:19)”을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9개국(한국, 미국, 호주, 브라질, 이스라엘, 멕시코, 영국, 독일, 중국)에서 48명의 이단대책 사역자들이 참가했다.

13일 오후 7시 열린 개회예배는 사회 이종명 목사(뉴욕, 부회장), 기도 김진훈 목사(콜롬비아), 설교 김순관 목사(회장), 광고 이인규 장로(상임위원, 준비위원장), 축도 백남선 목사(가이협 대표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14일 이어진 세미나를 통해 박형택 목사(합신 이대위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장)은 “메시아니즘의 정체와 비판”이라는 내용의 세미나를 통해 메시아니즘의 신앙적 토대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문제점들을 비판했다. 박 목사는 잘못된 성경해석,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왜곡된 해석,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각, 기존교회를 대체신학으로 치부하는 편견, 유대 율법주의의 회귀, 주님 재림에 대한 곡해, 신사도운동 사상과의 결착, 현존하는 기성교회의 폄하 등의 메시아니즘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단대



세계한인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 제 7차 정기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했다.

책연구회 회장)는 “세계의 이단 분포”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통해 세계의 종교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교(33%), 이슬람교(23%), 힌두교(14%), 불교(7%)를 중심으로 비교했다. 또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는 한국인의 종교심성으로 혼합적인 요소, 가복적인 요소, 신비적 감정적 요소, 형식적 요소, 도피적 요소 등을 소개했다.

김성환 목사(합신 이대위원,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은 “퀴어신학의 이단성”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통해 퀴어신학은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신학적인 시도라고 소개했다. 퀴어신학은 동성애적인 기독교론, 음란조장, 동성결혼 정당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에 받으신다는 잘못된 구원론

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인규 장로(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대표, 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 사무총장)는 “지방교회의 교리 비판과 반증”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통해 지방교회의 교리들을 소개하고 지방교회는 신론은 양태론과 상호내재, 기록론은 아폴로내리우스주의, 인간론은 영혼육을 공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3분법, 구원론은 신화사상과 단체구원론, 성경론은 위치만 나와 위트니스 리의 해석 추종, 종말론은 내세 부정과 극단적 세대주의, 교회론은 배타적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세이언 임원선거는 부회장 이 고사해 회장 김순관 목사가 연임됐다.

(기사제공: 세이언)



어린이전도협회 24회 후원의 밤 행사에서 여병현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명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교사 필요”

어린이전도협회 제24회 후원의 밤 성황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 제24회 후원의 밤 행사가 17일 오후 6시 옥스퍼드팔레스트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본 협회 대표로 이사장은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청년들 위해 하나님께서 어린이전도협회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오늘 후원

의 밤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찬양과 경배 시간으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 어린이전도협회 소개와 나눔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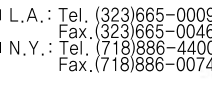
여병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 들고 달려가야 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생활 보다는 컴퓨터, 인터넷, 셀폰 등 소셜미디어라는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영향력 아래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영, 혼, 육이 병들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선교적 사명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비전을 갖도록 이끌어 주려면 확실한 사명과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교사들에게 부탁합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매스터싱어즈&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성황



LA매스터싱어즈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가 마친후 전출연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경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om Tel. (323)913-4499 /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독서(월-금): 오전 5:30 토요말씀: 오전 6:30 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오전 11:20 창은이 예배: 오전 11:20 청 은 이 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 (장소:KCC, 정동대침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W.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불응), Tel. (213)210-69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택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83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영어)예배: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창년부)새: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전 9:15,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새벽 7: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미션)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말씀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세가지도센터: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방화: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l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lacomestony.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어)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창년부예배: 오전 10:00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www.torrancej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동부교계

게시판

east

RCA대뉴욕지구교회연합회 전도동력 세미나

RCA대뉴욕지구교회연합회가 주최하는 연합부흥성회 및 평신도 전도동력 세미나가 4월 6-8일(6-7일 저녁 8시, 8일 오후 4시)까지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민경설 목사(미래목회연구원 원장 및 서울, 시화 광진교회 담임). 또 4월 9일 오전 10시30분에는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목회자 전도동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917)514-0369

뉴욕초대교회 사순절 특별부흥회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사순절 특별부흥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윤보환 감독(인천영광교회 담임, 한기부 대표회장)이며 시간은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새벽 5시45분, 주일 오전 9시, 11시, 저녁 5시.

▲문의: (347)502-2571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증축 봉헌 감사예배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분당 증축 봉헌 감사예배가 4월 22일(주) 오후 5시에 열린다. 원래 사용하던 400여석 예배당을 본당과 구 교육관 건물을 합해 800여석의 예배당으로 증축했다.

▲문의: (718)229-0858

뉴욕모자이크교회 영적 대각성 집회

뉴욕모자이크교회(담임 장동일 목사) 영적 대각성 집회가 3월 23일부터 25일(주)까지 열린다. 강사는 কমিশন 대표 이재환 선교사로 금요일 저녁 8시30분, 토요일 새벽 5시45분 저녁 8시30분, 주일 1, 2, 3부 예배시간.

▲문의: (718)225-6962

뉴욕가정상담소 39기 자원봉사 교육

뉴욕가정상담소 39기 자원봉사 교육이 5월 17일(목)부터 5주간에 걸쳐 한인청소년재단(KAYF)에서 실시된다. 교육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교육내용은 가정폭력과 관련해 법적지원, 경제교육, 알코올 및 약물중독, 뉴욕 내 쉼터와 주택 및 피해자 보상제도, 아동 및 노인학대, 성폭행, 교육 및 방치책, 상담방법 등이며, 경찰과 각 분야의 전문상담인이 초청강사로 초빙된다. 교육을 실시한다. 5주간 교육 후 24시간 운영 상담소의 하라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재료비 50달러. 점심 제공.

▲문의: (718)460-3801(36, 34) hongseok.lee@kafsc.org(이홍석 인턴)

동부소식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22개 지역에서
뉴욕교협 제44기 제 2차 임실행위원회

뉴욕교협 제44기 제 2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양민석 목사(부활절 준비위원장) 인도로 기도 김명옥 목사,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 말씀 김한식 목사, 합심기도 김영철 목사(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및 상하 의원들을 위하여) 김상태 목사(조국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김정숙 목사(뉴욕동포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마바울 목사(교협 세미나 및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위하여), 광고 김희복 목사, 환영인사 김성국 목사, 축도 허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자인 김한식 목사(한사랑교회 담임)는 미스바회개운동본부 대표로 3.1절 태극기 집회 등을 주도한 바 있다.

김한식牧사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나라를 구한다”(사10:24-2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구원한다”며 “첫째, 모세를 통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둘째, 기드온 삼백勇士가 13만5천명을 섬멸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72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심각한 위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1983년 미스바회개운동과 아용산 폭파사건, 1985년 10월 3일 회개집회로 제2의 광주 사태를 막은 것 등을 간증하며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수

정에 대해, 또 현 정부의 공산화 움직임 등을 성토했다.

김 목사는 “공산주의는 악한 영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 하지만 성령의 기름부음은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고 강조하고 “세계의 수도 뉴욕에서 한인교회가 회개운동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위기에 서 구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루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사항 대부분이 논의됐다.

보고 및 안건으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찬찬 보고: 총450명 참석, 수입 41,270달러 지출 25,828달러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4월 1일 오전 6시, 22개 지역, 헌금은 미자립교회 지원 △예수사랑실현 운동 건: 공문발송 △1/4분기 감사보고: 김기호 감사 발표 △교협세미나 건: 4월 11-12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강사 유석영 목사(한눈에 보는 성경 세미나) △회칙개정 건(기자회견 내용과 동일)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44기 제 2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이만호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자립교회 후원, 선거법 개정 추진
뉴욕교협, 14일 기자회견 열고 설명회

한편 뉴욕교협은 임실행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교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와 △예수사랑 실현 △헌법 개정 관련 브리핑 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장 이만호 목사는 회견을 시작하며서 “회기를 시작하면서 소통과 연합함으로 복음화, 성령화, 성사화 운동으로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를 기도했다”며 “동포사회의 귀감이 되고 영적 위상을 세우며 예수사랑 실천하는 교협이 되도록 좋은 선례를 남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전통적으로 해온 방법대로 22개 지역을 나눠 진행된다. 현재 각 지역 준비위원장 결정된 상태고 장소나 설교자는 아직 미정이다.

특별히 이날 안창의 혁신자문위원장이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예수사랑 실현(사랑의 가교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안 목사는 “이 운동이 한민족과 교회 정체성을 위한 기도운동”이라며 “은퇴후 지난 5년간 뉴욕의 20여 교회들을 방문해 예배를 드렸는데 150여개가 미자립교회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자립교회가 미

자립교회를 후원함으로 주 안에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해주시 바란다”고 호소했다.

교협은 현재 7개 교회를 월 200-300달러씩 후원하고 있으며 3월말에 5개 교회가 추가된다. 이만호 목사는 “목표는 50개 교회를 후원하는 것”이라며 “후원대상 교회는 교협이 추천하거나 후원교회가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후원대상이나 후원하는 교회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주로 선거제식에 관한 것으로, 이만호 목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돈 선거’ 방지 위해 후보들의 투표자 접촉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제안했다. 또 부회장이 회장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과 참석자의 과반수로 선출되는 것 등을 세칙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혁신자문위원장 안창의 목사, 부회장 정순원 목사, 회장 이만호 목사, 이사장 김주열 장로, 총무 김희복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등이 참석했다(사진, 왼쪽부터).

〈유원정 기자〉

KPCA뉴저지노회 노회장 김도완 목사
뉴저지산돌교회, 뉴욕아스토리아한인교회서도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저지노회(노회장 임종화 목사) 제58회 정기노회가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뉴저지 한무리교회(박상돈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김도완 목사 인도로 기도 김재진 장로, 설교 임종화 목사, 성찬식 정재 윤만열 목사, 축도 임종화 목사, 광고 방홍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회무에서 임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김도완 목사(뉴저지장로교회) △부노회장 방홍석 목사(

새하늘교회), 서강민 장로(뉴저지장로교회) △서기 정창문 목사(프린스턴연합교회) △부서기 조인목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회록서기 강신균 목사(빛진자들선교회) △부회록서기 김영철 목사(이레교회) △회계 박진수 장로(한무리교회) △부회계 손동우 장로(뉴저지초대교회) △감사 안병구 장로(뉴저지장로교회), 정철 목사(예인교회).

회무를 통해 세상의빛교회와 민경수 담임목사 회원가입 청원, 빛된교회와 박동은 목사 회원가입 청원,



KPCA 뉴저지노회 제58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명성교회(서경석 목사)의 김현웅과 한영수씨 장로고시 청원, 뉴저지장로교회의 김선복과 김용현씨 목사고시 청원, 예인교회의 오철과 정진희씨 목사고시 청원, 빛된교회 장로 1인 증선 청원, 예인교회와 한무리교회 교회주소 변경 청원 등

을 다뤘다. 한편 뉴저지노회 임원회는 담임 목사 권고사임, 당회의 조직, 개정 헌법 장로의 시무연한에 대한 현의안 3건을 대위로 올렸다.

〈정라: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Tel. (516)265-259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Tel. (718)461-2810(Fax: 김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http://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Tel. (718)7406-7577, (718)38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myanthos.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Tel. (347)513-1351, c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임오전예배: 오전 11:00
주임저녁예배: 저녁 7:00
주요기도회: 저녁 9:00
주요4부예배: 오후 2:00
주요3부예배: 오후 3:30
주요2부예배: 오후 5:00
주요1부예배: 오후 7:00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Mexico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주요1부예배: 오전 11:00
주요2부예배: 오전 11:30
주요3부예배: 오후 3:00
주요4부예배: 오후 6:00
(1, 2부 예배는 주일 제외)

Tel. (52)33-3507-4111
E-mail: haninrk@haninrk.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2018 남가주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정기노회

2018 남가주지역 부활절연합 새벽예배가 부활절인 4월 1일(주) 오전에 남가주 각 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다음은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일정이다.

지역	시간	장소	문의
LA동부	5:30	하나로커뮤니티교회(이승준 목사)	(626)912-6600
남가주중부	5:30	생수의강선교회(안동주 목사)	(562)653-0168
사우스베이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	(310)618-2222
샌디에고	5:30	소망교회(이창후 목사)	(858)292-0999
OC	5:30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	(714)821-9900
밸리	5:20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818)832-6628
인랜드	5:30	남가주헬로십교회(박혜성 목사)	(909)397-5737
벤츄라	6:00	씨미밸리한인교회(반재근 목사)	(805)582-1102
빅토밸리	5:30	새생명한인교회(정철)	(949)341-0022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역자회 총회를 마친후 로고스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하고 있다. 왼쪽 위 사진은 이날 새회장으로 선출된 안신기목사

새회장 안신기 목사, 부회장 이경원 목사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정기총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김희창 목사) 정기총회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로고스교회(담임 신동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안신기 목사(LA동미방회, 한사랑교회) △부회장: 이경원 목사(남서부지방회, 오렌지중앙교

회) △총무: 김시은 목사(LA지방회, 웅기장이교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는 산하에 LA지방회, LA동지방회, 남서부지방회가 연합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의: (909)677-0028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LA한국교육원은 LA 한국교육원 회의실에서 한국의 통일부 통일교육원 관계자와 재외동포 어린이 대상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LA지역 한글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재외동포 자녀 통일교육관 교육 중요 LA한국교육원, 한국통일교육원과 한글학교교사 간담회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은 13일 오전 11시 LA 한국교육원 회의실에서 한국의 통일부 통일교육원 관계자와 재외동포 어린이 대상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LA지역 한글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일교육원은 한국 정부인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학교 및 공공,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이 정택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은 통일교육원이 개발한 재외동포 어린이 대상 통일교육 교재, “통일이 안녕(Hello! Unified Korea)”을 설명하며, 한글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활동지, 영문 자막 영상자료

등이 탑재된 홈페이지를 소개하며 활용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숙영 남가주한국학원교육감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은 시의적절하며, 재외동포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자료 및 교사 연수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기사제공: LA한국교육원)

한길교회 노진준 목사 사임발표 3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

한길교회의 담임인 노진준 목사가 지난 3월 4일 주일예배를 통해 사임을 발표했다. 노진준 목사는 2009년 한길교회의 전신인 세계로 교회에 부임했으며, 2010년 헤브론 교회와 합병을 통해 현재의 한길교회를 시작했다. 노 목사는 8년6개월간의 목회를 통해 크고 작은 분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꾸준한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교계 가운데 대표적인 설교가로 손꼽힐 만큼 탁월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으며, 젊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폭넓은 신망을 받아왔다. 이번 사임발표는 건강상의 문제, 리더십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교인 공금 횡령 사태에

서부교계 게시판

2018 TVNEXT Truth Forum
다음세대 가치관 창립&보호단체인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TVNEXT)가 주최하는 Truth Forum이 복음과 문화-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라!(롬12:2, 골2:6-8)라는 주제로 오는 4월 6일(금) 오후 7시30분, 7일(토) 오후 1시에 Venture Christian Church에서, 13일(금) 오후 7시30분, 14일(토) 오후 1시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tvnext.org@gmail.com

Blue Window 인문학 강연 시리즈
Culture&Society Event Production은 Blue Window 문화&예술을 통한 인문학 강연을 24일(토) 오후 5시30분에 EFATHA Art Gallery 에바다 아트 갤러리(555 S. Western Ave. #204)에서 갖는다. 행사 참가는 무료이며 현장 도네이션이 가능하며 간단한 리셉션 음식과 음료가 제공 된다. ▲문의: (310)922-9100

유니온교회 고난주간 특별집회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 고난주간 특별집회가 '가상절연'이라는 주제로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개최된다. 일정은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오후 8시, 31일(토) 오전 6시30분. ▲문의: (626)858-8300

KPCA 서노회 여성교회 헌신예배
KPCA 서노회(노회장 김동원 목사) 여성교회 헌신예배가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23일(금) 오후 7시20분에 갖는다. ▲문의: (310)325-4025

달라스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달라스지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4월 1일(주) 오전 6시 세미한교회(담임 최병락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72)446-0178

시애틀형제교회 고난주간 특별집회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Encounter Jesus(예수를 깊이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오후 7시30분에 바셀캠퍼스 빌딩1 본당에서 갖는다. 강사는 David Gava 목사(국제예수전도단 YWAM 강사). ▲문의: (425)488-1004

세리토스선교교회 새생명축제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는 새생명축제를 부활주일인 4월 1일(주) 오전 8시와 11시에 갖는다. ▲문의: (562)402-2919

어스틴 지역 부활절연합 새벽예배
어스틴한인교역자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절연합 새벽예배"가 4월 1일(주) 오전 6시에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이승태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512)454-1727

서는 노진준 목사의 사임 결정과 재정사태의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노진준 목사는 교인들에게 당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임안에 대한 승락을 받았다는 것과 사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임 결정을 존중해줄 것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만장일치로 사임안 결정을 부탁하기도 했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사임 결정의 부결을 묻는 형식으로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당회사임 결정을 수락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노진준 목사의 사임건이 최종 수락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노진준 목사는 다음 목회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학교로 돌아가 공부와 함께 새로운 사역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정리: 박준호 기자)



노진준 목사

대한 책임이 주요 사임 이유로 발표됐다. 사임 요청은 당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차 통과됐으며, 교인들의 최종 수락을 받기 위해 공동의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월 18일 열린 임시 공동의회에

담임 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에서는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1 자격 요건**
 - 1) 정규대학, 신학대학원 (M.Div)를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은 분.
 - 2) KAPC(해외한인장로회)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3) 이인 목회 경력 5년 이상 (당회원 복무사 포함)되신 분.
 - 4)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 5) 연령 45 - 60세.
-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3) 목회 비전과 소명서 1부.
 - 4) 신학교 졸업증명서.
 - 5) 소속교단 재직증명서.
 - 6) 목사 안수증.
 - 7) 추천서 (목회자) 2분.
 -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DVD 2편 (동영상 파일).
- 3 서류 제출처**

청빙위원회
4839 Pearl Rd., Cleveland, OH 44109
Email : younghlee53@gmail.com
- 4 제출 기간**

2018년 4월 30일 까지
- 5 기타**
 - 1) 서류 (Email) 혹은 우편으로 제출 바랍니다.
 - 2) 우편으로 제출 하신 분은 필히 Email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 5) 사역하신 교회마다 2분 이상의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전화번호(장로)

2018년 3월 15일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열린 ICM 주관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무료 강의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무료 강의 ICM주관, 강사 제임스 구 교수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ICM,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가 주관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의가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 위치하고 있는 플러튼 은해 한인교회 캠퍼스 내 Grace Library의 GL2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의는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IT, 비영리단체 및 비즈니스선교 담당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강의는 비영리 단체의 정의, IRS Tax Exempt, California State Tax Exempt, 비영리 단체 IRS 및 California 연간 세금 보고, 기타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관련 유의할 점에 대해 강의했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교도소 선교칼럼 (41)

이란 여자 살린의 교도소 선교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제가 사역하는 아담스 카운티는 거의 모든 재소자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들이고 그 중에 40퍼센트 정도가 스페인어권에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비영리 단체로 2005년에 설립된 변화프로젝트 문서선교의 책들은 처음에는 영어로만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멕시코 재소자들로부터 “예수님과 걷는 길”을 스페인어로 출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번역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걷는 길” 책 뿐 아니라 여러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한 명의 재소자를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이 문서선교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2013년부터는 한국어 “예수님과 걷는 길”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 뿐 아니라 소책자를 두세 권씩 묶어서 출판한 책들이 9권이며 그 책들은 한국 교도소와 미국 교도소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어 출판을 시작했을 때 일이 너무 많아서 벅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인도어와 베트남어로 “예수님과 걷는 길”을 출판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변화프로젝트 문서선교의 책들이 이란어로 번역이 되어 출판이 되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프로젝트는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에서는 LA에 있는 투윈타워 교도소(Twin Tower Correctional Facility)에 영어,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된 신앙 서적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자원 봉사하시는 한 목사님이 2013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영희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와 함께 교도소에 가서 이란 재소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자원봉사를 하는 살린이란 여자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의 성도인데 목사님의 책,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고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책을 이란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본을 재소자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 후에 살린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재소자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후 제가 쓴 “예수님과 걷는 길” 2편부터 4편까지를 그분이 다 번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타이핑을 하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한 장에 5불씩을 지불하면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과 걷는 길” 1-4편까지만 해도 280장이 넘습니다. 그분은 자비로 타이프스트에게 여러 권의 책을 준비하게 한 후 변화프로젝트에 그 파일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변화프로젝트는 4권의 이란어 책을 출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살린이 번역하기도 전에 암이 몸에 다 퍼져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번역하기로 작정하여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살린의 남편은 시력장애인으로서, 교회의 반주자로 봉사하는 분입니다. 살린은 이란에 있을 때 영어를 이란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후 교도소에서 봉사하면서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는데 하나님

께서 살린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며 그 책을 번역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책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서 살린이 섬기는 LA에 있는 베벌리힐 이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살린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그녀가 책을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며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우리와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살린은 또 다른 책을 번역해서 그 책이 출판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목사님과 살린의 친구들이 여러 나라의 교도소에 살린이 번역한 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은 일본에 사는 한 이란 성도가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고 은혜를 받았으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픔 속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연약한 한 여성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살린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사역을 위해 동역하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망하지 않는 교도소 사역 목사님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일하시는 주님께도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부활절에 부치는 시

부활의 아침



황동익 목사

(뉴비전교회 담임,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장)

경건한 어여쁜 여인의 손길처럼

바람결에 들릴 듯 말 듯

잠자던 주님을 깨우던 천사

다시 살아난 생명의 주님

신비를 머금고 묻어나는 새 생명

두려워 말라

영광의 음성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무섭고 괴롭던 절망에 놀란 사슴처럼

매서운 동절의 찬 서리 위에

얼어붙은 나뭇을 감싸던 찬바람이여

빙빙 돌고 돌아 봄 숨결 묻어나니

실개천 버들강아지는 생명을 얻고

영광의 기지개 하늘을 향해

들리는 숨소리에 퍼져나가네

소망으로 들뜨인 언약의 비석

봄 숨결타고 찾아온 주님

고통의 가지에 희망의 꽃 피우리

무덤에서 얼굴을 밀어 내보이시니

부활하신 기상을 찬양하리

온 세상에 기쁨을 과시하리

영광의 주님을 우렁찬 소리로 전파하리

“타다 남은 막대기처럼 지쳤지만 北 선교 못 놓아”
‘통일전문가 연합네트워크’로 활동 재개하는 임현수 목사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3·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목사는 눈을 감고 감회에 젖었다. 하루 8시간 강제노동을 한 북한 감옥에서의 삶에 회한이 밀려드는 듯 했다. 그렇게 혹독하게 고생하고도 북한구호 및 선교의 끈을 놓지 않는 그를 17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통일전문가 연합네트워크 첫 출발모임’에서 만났다.

“이제 통일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저는 많이 지쳐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평화통일만은 꼭 이루어야겠기에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북한은 우리 동족입니다. 절대 무관심해선 안 됩니다.” 그가 주축이 된 이 모임에는 정성진 고명진 유관지 박종근 천기원 박상원 목사, 주도홍 이정훈 신창민 교수, 변수연 홀리원코리아 교육지원센터 대표, 박대현 모두함께 대표 등 내로라하는 통일전문가

와 목회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 모임은 2014년 5월 임 목사가 평화통일을 준비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임 목사는 미주와 유럽, 한국 등을 오가며 통일전문가들과 접촉했다. 하지만 그가 2015년 1월 북한에 억류되며 중단됐다. 지난해 8월 석방되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구체적인 모임을 발의했고 이날 첫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모임은 다양한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통일연합 세미나 및 통일음악회를 연다. 전세계 교회를 돌며 평화통일 헌신예배를 드린다. 올 하반기에 유럽선교 포럼, 종교개혁 발상지 4개국 비전 트립, 8·15 광복기념 워싱턴집회 등도 예정돼 있다.

임 목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했다. 북한 돕기 운동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교회 통일모임

은 간혹 있었는데 전문 분야간 네트워크는 미미했다”며 “통일모임을 할 때 돈과 감투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통일운동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일운동의 주인공이 돼야합니다.”

그는 “석방 한 달 전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통일비전을 주셨다”며 “1300쪽에 달하는 통일 아이디어를 적어놓았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나왔다. 유엔을 통해 그 서류를 받아내려 한다. 하지만 없어도 괜찮다. 머리속에 있으니 하나하나 꺼내 놓으면 된다”고 했다.

임 목사는 18년간 북한을 150번 방문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놔다. 주일예배를 마치면 밥비행기를 타고 북한으로 향했고 토요일 오후에 도착하는 일정이 계속됐다. 임 목사가 어딜 가는지 모르는 교인들도 많았다.

후원자들과 함께 북한고아 1만 여명을 먹이고 입혔다. 양로원 8개를 건축해 노인을 돌봤다. 수백만 달러 배를 구입해 수산물을 잡을

수 있게 도왔고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도 지어줬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 달러(500억여원)가 넘는다.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북한을 다닐 수 있었느냐고 묻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을 할 때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교회 북한 구호사역을 소개하면서 무비자 혜택을 받았고 북한의 207개 군을 모두 돌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임 목사는 “그렇게 신실하게 도왔는데 결과는 종신형이었다. 북한 최고의 존엄을 모독했다는 게 죄목이었다. 하지만 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보관된 금수산, 북한 실정 등을 설교 메시지로 전했을 뿐”이라고 했다.

심문하던 노동당 당원이 두 번이나 울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수령을 어떻게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는느냐며 ‘평평’ 울었던 것. 임 목사는 “북한이 이제 우리와는 많이 다르구나 느꼈다. 평화통일이 되려면 북한주민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기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한:) 오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기도: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0:45, (금) 오후 8:00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기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8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기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헌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주일 4부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영년모임: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아리조나 기도원 매매 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 · 대지 7.3에이커 · 건물 3동 과 예배실 · 피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 문의: 623-326-5532	

부활절 축하 광고

Happy Easter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0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Fax.(310)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OPEN
HOUSE
WEEKEND**

오픈 하우스

**토요일! 일요일! (12~5PM)
3월 24일(토), 3월 25일(일)**

**L.A 한인타운 최고의 편리한 지역
콘도미니엄 64채**

SOLD OUT

**Only 10채만 남았습니다.
오셔서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여 하세요!**

**COME
CELEBRATE
WITH US!**



**ELEMENT
FOUR THIRTY SIX**

콘도미니엄

마지막 10채 남았습니다.

Open 하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델하우스와 펜트하우스를 투어하시고 준비된 다과를 즐기세요.

\$2500 Preferred Lender Credit에 대해 문의하세요.

Exclusively Represented By:
KW Larchmont
Keller Williams Realty

Dae Hur
BRE#01489175

Christina Kim
BRE#01431281

kw LARCHMONT
KELLERWILLIAMS

436 S. VIRGIL AVENUE, LOS ANGELES, CA 90020

323.515.9373 WWW.ELEMENT436.COM



Until April 30, 2018 Element 436 and their preferred lenders will be offering a buyer credit of \$2500 toward closing costs. Credit will be paid as a credit through closing of escrow.

Qualified borrowers must meet eligi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eing owner-occupants, meeting certain qualifying income limitations and purchasing a home within a certain geographical area. The buyer credit is a lender credit and not eligible to be used for down payment, escrowed taxes or homeowner's insurance. No cash back to borrower. Not all applicants will qualify. Minimum credit scores may apply. Sales price restrictions and income requirements may apply. Owner-occupied properties only. Maximum loan amounts may apply. Credit and collateral are subject to approval. Terms and conditions apply.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Programs, rates, term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his offer is valid for a limited time and can be withdrawn without notice by the Seller. Restrictions apply. Buyers must be in a ratified contract by 4/30/2018 in order to qualify for offer. Please contact the Element 436 sales representative for additional restrictions, rules on credit redemption or any additional questions you may have. E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